

# 전남도 수산자원 육성 박차

## 78억 들여 어초 설치·종묘 방류 국제해조류 박람회 개최도 추진

바다에서 미래의 꿈을 건진다. 전남도가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등 황금어장을 만들고, 돈이 되는 해조류(海藻類) 산업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국제해조류박람회를 준비하는 등 수산자원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6월 “올해 총 78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인공어초·종묘 방류·바다목장 등 수산자원의 서식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 내 400ha의 연안해역에 52억원을 들여 어초 제작 및 투하로 유용 수산동식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새로운 어장을 만든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에는 24억원을 투입해 10월 말까지 도내 13개 연안

시군에 우량 수산종묘 3500만마리를 방류한다. 첨단 기술과 음향 시스템으로 연계된 바다목장과 단지 조성에는 2억원을 투입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도는 이런 수산자원 조성 노력으로 지난해 바다낚시 인구 30만여명을 유치, 직접적인 소득만 110억원을 기록, 바다낚시가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14 국제해조류박람회”도 본격화된다. 도는 지난 2월 농림수산식품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상반기 중에 개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바다의 채소로 불리는 해조류는 곡물을 대체한 식량자원으로 각광받고 있고 기능성 소재, 미용, 의약,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활용 가능한 신산업이다.

이 박람회는 ‘해조류는 생명이다’를 주제로 2014년 4월 18일부터 5월 11일까지 24일간 열릴 계획이다. 주전시장, 청정지구관, 해조류산업관, 미래식량관, 미래해양문화관 등으로 전시관을 꾸릴 예정이다. 또 해양문화와 산업형이 복합된 축제형 박람회로 열리게 된다.

박람회 기간 국내외 기업체와 바이어를 유치, 해조류와 연관된 기업의 판매량 확대와 수출시장 개척 등도 추진된다.

한편 전남 해조류 생산량은 88만 2000t으로 전국의 87.6%를 차지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차 영차...노젓기 경연

지난 5일 완도군 12개 읍·면 선수들이 옛 전통 배를 이용해 열린 노젓기 경연을 벌이고 있다. 완도군은 4일부터 6일까지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2012 완도장보고축제'를 개최했다.

(완도군 제공)

# 여수 향일암 복원 마무리

## 화재 소실 3년여 공사 대응전 낙성식

‘4대 관음기도처’인 여수 향일암이 지난 2009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3년여에 걸친 복원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거듭났다.

향일암(주지 원문 스님)은 6월 1시 관계자와 시의회 의장, 시의원, 사찰 관계자, 신도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응전 낙성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행사는 삼존불 점안식과 관음성종 타종식, 사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신라 선덕여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향일암은 금오산 중턱 절벽 절경에 자리 잡은 해맞이 명소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2월 20일 오전 0시 24분께 발생한 원인모를 불로 대응전, 종각, 종무소 등 사찰전 시설이 소실됐다.

새롭게 복원된 향일암은 전통사찰과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에 충실하게 복원됐다. 여수 세계박람회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대비해 90여명이 숙박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시설도 갖췄다.

한편 전남도 문화재자료 40호인

향일암의 복원공사에는 국·도비와 시비, 사찰부담 등 총 21억3000만원이 들어갔다.

/중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 강진군 조직개편 군민위원회 발족

강진군이 기구개편의 자문역할을 수행할 ‘강진군 조직개편 군민위원회’를 최근 발족했다.

군은 의회·학계·언론계·사회단체 대표 등 조직개편 군민위원회 위원 3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나중 식 현 강민회 회장(전 강진군 내무과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군민위원회는 앞으로 강진군의 조

직진단과 군민 공감대 형성 등 조직개편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되며, 군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군정 발전방안을 적극 제시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팀제를 운영해 오면서 중앙과 타 시·군과의 조직 연관성이 없어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 나주 벼 자동화 육묘장 3곳 개장

최근 나주지역에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이 잇따라 들어서 고령화와 부녀화 현상 등으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6월 나주시에 따르면 관내에는 최근 완공된 영산포농협 육묘장을 비롯해 산포, 봉황농협 육묘장과 이미 가동중인 남평농협 육묘장에서 벼 육묘를 하고 있다.

육묘장 규모는 ▲봉황농협 4만장(133ha) ▲영산포농협 3만장(100ha) ▲산포농협 1만5000장(56ha) ▲남평농협 5만장(170ha)에 달한다.

이들 육묘장에서 육묘를 공급받는 농가는 740여 농가에 459ha로 전체 2475농가의 30%, 벼 재배면적의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의 벼 공동육묘장은 2004년 336㎡에서 올해는 5949㎡로 대폭 늘었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n@

# 인구 5000명 늘고 수출 호조

## 전북도 1분기 도정통계 제공 노동·경제 등 23개 지표 발표

전북 도내 인구가 지난 2009년을 저점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경제 부문은 다소 부진하나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호남 지방통계청,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북발전연구원으로 구성된 전북통계협의회는 올 1·4분기 도정 대표통계 23개 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통계는 인구·노동·경제

등 전북 사회변화상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10개 기본현황 지표와 일자리·민생·새만금 등 도정 핵심 성과과제 6대분야의 12개 지표로 구성됐다.

인구의 경우 전주·군산·완주의 인구유입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5000여명이 증가했다. 이는 전출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최근 유입한 기업과 귀농·귀촌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 인구는 전분기 대비 30세 미만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30세 이상은 50대가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활동은 광공업 생산이 전기 대비 2.9% 감소하고 생산자제품 재고가 4.8% 감소하는 등 둔화했으나, 수출은 전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선박의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 전체적인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전북동행 경기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0년 6월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기업유치는 전년 동기 대비 48.1% 증가한 40개기업을 유치했고 ▲산업단지 규모 0.5% 증가 ▲분양율 2.8%p 상승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새만금 사업 공정률은 ▲산업단지 11.2% ▲방수제 16.4%로 나타났다.

앞으로 전북도는 전북통계협의회에서 정한 ‘도정 대표통계 지표’의 고도화 운영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선도기업 매출액·지역건설업체 수주액·지역내 총생산 등 10개 통계를 추가한 전체 지표에 대해 분석·발표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전주-완주 통합 실무협의회 운영키로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통합시의 비전 마련을 위해 3개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전북도는 최근 통합시 비전 마련을 위해 김완주 지사, 송하진 시장, 임정업 군수가 매일 정례적으로 만나기로 합의했다.

정례회에서 상생발전 사업의 실천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실무 협의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사항들을 바로 정리해 통합작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또 3개 기관에서 5명씩 총 15명이 참여하는 ‘완주·전주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격주 단위로 가동한다.

실무협의회는 김승수 정무부지사, 전주시 부시장, 완주군 부군수가 주축이 돼 통합청사, 스포츠타운 조성 등 핵심사업과 농업·농촌지역에 대한 비전 마련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전주시, 완주군은 지난달 30일 통합 건의서를 ‘지방행정 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 제출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정음 만석보 유채꽃 축제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정음시 제공)

# 사과 개화기 빨라져 저온 피해 주의보

사과 개화기가 빨라져 늦서리와 저온 피해가 예상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사과 개화기는 전년보다 4~5일 정도 빨라져 저온 피해가 우려돼 예방에 철저함을 기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사과나무의 늦서리·저온 피해는 개화기를 전후해 영하 2도 이하의 열

어지면 씨방이 쉽게 변하며 수정이 되지 않는다. 수정후에도 기형과가 돼 일찍 낙과되기 쉽고, 과실 표면이 거칠어져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서리가 내리기 쉬운 기상조건은 바람이 없고 맑은 날 오후 6시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면 서리가 내릴 위험이 크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 70ha 노란 세상에 풍덩 5일~13일 정음 만석보유채꽃축제

5일부터 13일까지 정음시 이평면 만석보 일대에서 열리는 ‘만석보 유채꽃축제’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행사장은 정음시 대표브랜드인 ‘단풍미인쌀’이 생산되는 배들평야 70ha의 면적에 집단적으로 유채를 재배해 경관 농업지구를 조성한 곳이다.

축제위원회는 동진강 만석보유채 재배와 유채꽃길 주요지점에 붓꽃 화단과 대형 바람개비, 허수아비, 간이 워터, 꽃마차 등을 설치해 관광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 농·특산물과 먹거리 장터를 개설해 지역 특산품인 단풍미인 쌀과 무항생제 돼지고기 등을 판매해 농가

소득과 연계시키고 있다.

한편 동학 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정음시 이평면 일원에는 만석보터, 전봉준 장군 고택 등이 산재해 있다. 작은 민속촌인 ‘송창봉 조선동네’에서는 옛날 조선시대 초가자방 온돌방 숙박체험과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백기섭기자 park@

# 홍도 갯벌이갈매기 번식시기 9년전보다 1주일 빨라졌다

## 온난화 기온 상승 영향

신안 홍도에 서식하는 갯벌이갈매기의 번식 시기가 기온 상승으로 인해 9년전에 비해 1주일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2011년부터 갯벌이갈매기 최대 번식지인 홍도에 자동정점 촬영장치(PEN카메라)를 설치, 관찰한 결과 갯벌이갈매기 번식 시작 시기가 9년전인 2003년(4월 11일)보다 1주일(4월 4일)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갯벌이갈매기는 4~8월에 홍도와 같은 무인도에서 집단 번식하고 이후엔 번식지를 떠나 도서 지방이나 해안가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바닷새이자 텃새이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갯벌이갈매

기는 지난 3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등지와 주변 해상을 반복적으로 왕래하다 4월 4일 완전히 정착했다.

완전히 등지에 정착하기까지 낮에는 자신의 등지를 지키고 밤에는 모두 인근 해상에서 서식하는 번식동지 정착 행동을 하는 모습이 최초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히 매일 하루에 1회씩 등지에 왔다 가지던 기온이 좋지 않을때(비·바람·안개 등)는 등지로 돌아오지 않았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관계자는 “기온 변화와 집단 번식 바닷새 번식 시기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했다”며 “갯벌이갈매기 번식 동지 정착의 비밀을 밝힐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민기자 wncho@

### 단신

## 전북도 페이스북 팬 지자체 첫 1만명 돌파

전북도 페이스북 팬(Fan)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

페이스북 팬 1만명 돌파는 지난해 10월 공식 페이스북을 개설한 이래 7개월여 만에 거둔 성과다. 팬 수는 전북도에 이어 ▲충남도(5천300여명) ▲경기도(4800여

명) ▲서울시(4100여명) 순이다.

전북도는 팬 1만명 돌파를 기념해 축하 댓글과 이벤트 내용을 공유한 중 30명을 추첨해 1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만만(10000·10000)한 이벤트’를 16일까지 진행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익산문화재단 ‘문화 이모작 사업’에 범허

(재)익산문화재단(이사장 이한수)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전국 4개 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문화 이모작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문화재단 기초교육 과정은 오는 6월 4일~6일 까지 익산 유스호스텔 이리온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지역문

화 개념 이해 ▲지역의 문화자원 가치발견 ▲지역현장의 생생한 사례소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7일부터 23일까지 익산문화재단 문화예술팀으로 접수하면 된다.문의(063-843-8811)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 8일 ‘희망전북 정음시 그랜드취업박람회’

‘희망전북 2012 정음시 그랜드취업박람회’가 8일 전북과학대학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정음권역을 대표하는 대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등 총 21개 기업이 참여한다. LS엘트론, 하림, 대우전자부품, 캐스코 등 전북권 대표기업이

대거 참여,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17일 전주를 시작으로 이달 3일 익산에 이어 정음지역에서 열린다.

박람회는 채용관을 중심으로 취업 컨설팅관, 취업지원관 부대 행사관 등 매우 다채롭게 운영된다.

/전북취재본부=백기섭기자 park@

## 김제보건소 시민건강대학 신입생 모집

김제시 보건소(소장 이병철)는 노후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운영되는 2012년도 시민건강대학 프로그램에 참가할 신입생(선착순 40명)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자는 60세이상으로

김제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다. 접수는 보건위생과와 각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교육은 6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실시된다. 문의(063-540-1314)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